

청소년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박 영 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청소년들에게서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고,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을 대상으로 부모통제를 이상적 및 실제적 통제로 구분하여 부모통제척도로 평가하였고, 심리적 증상은 간이정신진단검사로 평가하였다. 청소년들은 학년에 관계없이 관습적 및 혼합영역보다 개인적 영역에 속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더 통제권을 가져야 하고, 실제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서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관습적 및 혼합영역에 대해서 부모가 더 통제권을 가져야하고, 실제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사이의 관련성은 중학생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고등학생들에서만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남녀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 부모가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많이 통제할수록 내재화 증상을 많이 보였으나, 부모의 관습적 영역에 대한 통제는 이들의 심리적 증상과 아무 관련성이 없었다.

주요어: 개인적 영역, 부모통제, 심리적 증상, 청소년

청소년들의 삶은 다양한 문제들의 연속이다. 예를 들어, 커닝을 할지, 선생님에게 인사를 할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어떤 대학에 갈지 등 많은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때로는 혼자 힘으로, 때로는 또래나 주변의 성인들과 상의하여 선택 및 결정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은 아주 다양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참조자는 역시 부모이다.

부모들은 각자 독특한 철학이나 입장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통제를 가한다.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하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박영신, E-mail: yoshpark@knu.ac.kr

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부모로서 자신들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통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연령, 성별, 사회계층, 성장하는 문화, 문제의 종류,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 등이 가능한 요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관계가 좋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들의 통제에 더 수용적일 것이다. 실제, 부모들을 지지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삶의 여러 영역의 문제들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Darling, Cumsille, & Martinez, 2008).

따라서 청소년들의 삶에서 이렇게 보편적인 부모통제가 청소년의 발달이나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적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부모통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덜 받게지만, 청소년들이 부모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에는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더 받게 될 것이다.

부모통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

부모통제와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어 왔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문제영역이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크게 도덕적 영역, 사회·관습적 영역, 및 개인적 영역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Turiel, 1983). 도덕적 영역의 문제들은 정의, 공정함, 다른 사람의 권리나 행복과 관련되는데 반해, 사회·관습적 영역의 문제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이 통일성을 갖도록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두 영역과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행복 또는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과 무관하고 단지 행위자 자신과만 관련된다. 청소년들은 이런 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이들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Mullins & Tisak, 2006; Nucci, 1981; Turiel, 1983), 중요하게는 세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누가 통제해야 하는지를 다르게 본다.

미국의 10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도덕적, 관습적, 개인적 및 복합적 문제를 제시하고 각 문제에 대한 부모통제의 정당성을 평가하게하자 청소년과 부모 모두가 도덕적 및 관습적 문제에 대한 부모통제를 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Smetana, 1988). 비슷하게, 12세, 14세와 16세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가설적인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복합적, 및 친구문제에 대해 부모통제의 정당성과 이 문제들에 대한 부모-자녀 갈등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을 때에도 청소년들은 도덕적 및 사회·관습적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통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Smetana & Asquith, 1994). 이런 경향은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에서는 그들이 생활하는 문화권, 성별,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관찰되었다(Lins-Dyer & Nucci, 2007; Smetana, 2000).

그러나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아주 일찍부터, 즉 학령 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Yau & Smetana, 2003b)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극대화되었다. 미국의 12세, 14세와 16세 청소년들은 친구문제 및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보다 자신들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Smetana, 2000; Smetana & Asquith, 1994). 이러한 경향도 역시 청소년의 성별이나(Lins-Dyer & Nucci, 2007) 성장하는 문화권에 관계없이 칠레(Darling, Cumsille, & Martinez, 2008), 필리핀(Darling, Cumsille, &

Pena-Alampay, 2005), 홍콩과 중국(Yau & Smetana, 2003a), 브라질(Milnitsky-Sapiro, Turiel, & Nucci, 2006), 일본(Hasebe, Nicci, & Nucci, 2004)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도덕적 및 사회·관습적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통제를 인정하는 반면,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일반적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발달경향과 더불어 문화권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집합주의 문화에 속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어른에 대한 복종과 존경을 중요하게 보는 아프리카계 미국과 브라질의 청소년들은 미국의 청소년들과 달리 부모통제를 더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흑인 청소년들은 백인 청소년들이 부모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복합적 문제나 친구문제에 대해 부모통제를 인정하였다(Smetana, 2000). 또한 브라질의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해변으로 주말여행을 가거나, 주말에 파티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Milnitsky-Sapiro, Turiel, & Nucci, 2006).

부모통제와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

이처럼 문화권에 따라 구체적 양상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신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경향을 보였다. 개인적 영역은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서는 도덕적 및 사회·관습적 문제들과 달리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선호가 중요하다는 이해는 아주 일찍부터, 즉 약 3세경부터 나타나기는 하지만(Killen

& Smetana, 1999; Nucci & Weber, 1995), 아동들은 그 이후 주변 성인들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협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영역을 형성하고 확장해 나간다.

청소년들은 도덕적 문제나 사회·관습적 문제는 부모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별로 갈등을 경험하지 않지만,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Smetana, 1989; Smetana & Asquith, 1994; Smetana & Gaines, 1999). 이런 갈등의 일부는 단순히 부모와의 주도권 싸움이지만, 또 일부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들의 견해 차이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5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기술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갈등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게 하였다. 부모와 청소년 모두 갈등이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에서 일어난다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갈등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어서 부모들은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관습적 문제로 해석하는데 반해, 청소년들은 개인적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Smetana, 1989; Smetana, 1995;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2003a).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의 갈등과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부는 청소년들의 발달과 심리적 증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metana와 Daddis (2002)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를 행동적 통제와는 대비되는 일종의 심리적 통제라고 제안하였다.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도하기 위해 규칙, 규정, 제한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발달을 유도하지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었고, 심리적 통제는 과도한 참견, 죄책감

유도, 사랑철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독립감, 정체성과 개인적 통합성을 해칠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었다(Barber, 1996; Barber & Hammon, 2002; Barber, Olsen, & Shagle, 1994).

따라서 Hasebe 등(2004)은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가 일종의 심리적 통제로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부모통제를 이상적 통제와 실제적 통제로 구분하였는데, 이상적 통제란 특정 문제에 부모와 청소년이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대이고, 실제적 통제란 특정 문제를 실제 부모와 청소년이 통제하는 정도였다. 미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에서 이상적 통제는 심리적 증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고 실제적 통제만이 관련성을 보였다. 실제적 통제 가운데에서도 개인적 영역에 대한 통제는 신체화, 대인민감성,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증상과 미국 청소년에서 .22와 일본 청소년에서 .26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외현화 증상과는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제적 통제 가운데에서 관습적 영역에 대한 통제는 두 나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과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Hasebe등은 부모통제 자체보다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이 문화권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는 심리적 증상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었다. 멕시코계 미국 청소년들에서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학업성취와 부적 상관을 보여서 부모가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을 많이 통제할수록 학업성취가 떨어졌는데 반해, 다른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는 학업성취와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Lins-Dyer, 2003).

또한 개인적 영역에 대한 통제의 부정적 영향은 발달과정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발견되었다(Wang, Pomerantz, & Chen, 2007). 미국과 중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통제를 심리적 통제, 행동통제와 심리적 자율성 지지로 구분하고 학업과 정서기능과의 관련성을 6개월에 걸쳐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심리적 통제는 6개월 후의 정서적 불행을 예측하였고, 행동적 통제는 6개월 후의 학업성취율, 또 심리적 자율성 지지는 6개월 후의 학업성취율과 정서적 행복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자율성 지지의 효과는 중국 청소년들 보다는 미국 청소년들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적 영역에 대한 통제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을 포함하여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런 부정적 영향은 일본, 미국, 중국의 청소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이른 청소년기부터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서도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의 관련성이 검토되었는데, 청소년 대상의 선행연구와 달리,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달랐을 뿐 아니라, 그 관련성이 훨씬 더 포괄적이었다(박영신, 2009). 여학생들에서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통제가 내재화 증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회귀분석에서도 내재화 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남학생들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상호의존적인(고향자, 강혜원, 2003; 박수길, 이영희, 2002;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 2004) 경향의 결과일 수 있다.

연구문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

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하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동양 문화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전통적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서양 청소년들에 비해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에 더 수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율성의 획득이 문화권과 관계없는 보편적 발달 과업이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다른 영역의 문제보다 더 자신들의 통제권을 주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사이의 관련성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서도 발견되는지를 재검증하는 것이었다. 선행연구들은 관습적 및 혼합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달리,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가 청소년들의 내재화 증상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에 서양 청소년들보다 더 수용적이라면, 그로 인한 심리적 증상을 덜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자율성의 획득이 문화권에 관계없는 보편적 발달과업이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로 인한 심리적 증상을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비슷하게 경험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에 소재한 한 개 중학교와 한 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153명, 고등학교 1학년 132명, 2학년 120명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에

서 모든 문항에 동일한 반응을 하였던 무성의한 학생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중학교 3학년 132명(남자 64명, 여자 68명), 고등학교 1학년 126명(남자 59명, 여자 67명), 2학년 111명(남자 47명, 여자 64명) 총 36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사회계층은 중하류 이하에 속하였다.

연구도구

부모통제척도

청소년들이 여러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모통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sebe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척도에서는 세 영역 즉 개인적 영역, 관습적 영역과 혼합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부모통제를 평가하였다. 개인적 영역은 9문항으로 청소년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생활상의 문제들로 구성되었고, 관습적 영역은 7문항으로 도덕적 및 사회·관습적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혼합영역은 18문항으로 개인적 영역과 관습적 영역에 동시에 관련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자기 방 치우기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약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습적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Hasebe 등(2004)이 사용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적절하며 또 세 가지 문제영역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Hasebe 등(2004)이 사용한 41문항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중학생 141명에게 실시하였고, 자신들이 많이 경험하는 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도 같이 진술하게 하였다. 이 자료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요인에도 부하량이 .5 이상이 되지 못했고(예, 아플 때 약 먹기, 학교에 운동하러가기, 다른 학교행사 참여하기), 우

리 실정에 맞지 않았던(예, 집의 차 운전하기, 들을 수업선택하기 등) 7문항을 학생들이 진술한 문제들로 대체하였고, 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던 3문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예, 아르바이트 임금을 용돈으로 변경).

이렇게 새로 구성된 41문항을 또 다른 중학생들 405명(남 194명, 여 211명)에게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첫째 요인에는 주로 관습적 영역의 문제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에는 주로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 나머지 세 요인에는 주로 혼합영역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동일한 요인에 포함되었던 관습적 영역의 문제 7개, 개인적 영역의 문제 10개, 혼합영역의 문제 14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31개 문항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실시할 부모통제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관습적 영역 : 어른에게 대들기, 담배 피우기, 약물사용하기, 음주하기, 욕하기, 학교 빠지기, 식사예절 지키기

개인적 영역 : 자기 물건 관리하기, 용돈 사용하기, 일기장에 쓸 내용 정하기, 머리 스타일 선택하기, 방과 후 활동 참가 결정하기, 친구 정하기, 이성 친구 정하기, 음악 선정하기, 동아리 선정하기, 책 선정하기

혼합영역 : 귀가시간 정하기, 친구 집에서 밤 세우기, 집안 일하기, 폭력영화보기, 음란로고 있는 티셔츠 입기, 음란영화보기, 자기방 치우기, 친구와 보내는 시간 정하기, 19세 이하 관람불가 영화보기, 피어싱 하기, 화장하기, 추운 날 코트입기, 취침시간 정하기

이렇게 구성된 세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부모통제를 이상적 통제와 실제적 통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상적 통제와 실제적 통제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상적 통제에서는 특정 문제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이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 정도**를 평가하였고, 실제적 통제에서는 특정 문제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이 실제 통제권을 **행사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제에 대해 이상적 및 실제적 통제의 정도를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 결정한다(1점), ‘부모와 내가 같이 의논하여 결정한다(3점), ‘나와 의논하지 않고 부모가 혼자 결정하여 나에게 지시한다(5점)’ 등으로 구성된 5점 척도에서 평가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청소년 자신의 통제권을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통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구성된 부모통제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이상적 통제에서는 개인적 영역 .74, 관습적 영역 .87, 혼합영역 .84였고, 실제적 통제에서는 개인적 영역 .77, 관습적 영역 .87, 혼합영역 .84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간이정신진단 검사(김광일, 김재화, 원호택, 1984)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고등학생부터 일반인들의 정신 병리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전체 90문항이다. 피검사자들은 각 문항에 제시된 증상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5점 척도에 평가하였다. 이 검사에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병의 9개의 증상을 평가하며 이 가운데 전자의 6개의 증상은 정상적인 것으로, 후자의 3개의 증상은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개의 증상에 대해 .73~.83 사이였

고 내적신뢰도 계수는 .67~.89사이였다.

절차

연구에 사용될 도구를 학생의 간단한 신상 정보를 묻는 문항들, 부모통제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순으로 편집하여 하나의 자료로 제작하였다. 교사들이 이 자료를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배부하고 검사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각 검사지의 서두에 제시된 지시사항을 자세하게 읽은 다음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부모통제척도에서는 이상적 통제를 먼저 평가한 다음 실제적 통제를 평가하였다. 자료는 2009년 5월과 6월에 수집되었다.

결 과

부모통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

첫번째 연구문제, 즉 청소년들이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경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역별 이상적 및 실제적 통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예비분석에서 성의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자료에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학년) × 2(통제

유형) × 3(영역)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처음 변인은 피험자 간 변인이었고, 다른 두 변인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우선 통제유형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상적 통제와 실제적 통제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년($F_{2,303} = 14.02, p < .01$)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다. 학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t = 3.67, p < .01$) 2학년 학생들보다는($t = 5.43, p < .01$) 부모통제가 더 큰 것으로 지각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영역의 주 효과도 유의하였다($F_{2,606} = 384.96, p < .01$). 개인적 영역의 평균이 1.28로 상당히 낮았고, 그 다음이 혼합영역으로 평균이 1.89이었고, 관습적 영역의 평균은 2.31로 다른 조건들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영역별 평균을 대응표본 t-검증으로 비교하였다. 청소년들은 개인적 영역보다 혼합영역에서($t = -22.93, p < .01$), 또 혼합영역보다 관습적 영역에서 부모통제가 더 큰 것으로($t = 12.43, p < .01$) 보았다. 즉 다른 영역에 비해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에게 더 통제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학년 ×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서($F_{4,606} = 9.00, p < .01$) 이 상호작용을 그림 1에

표 1. 학년과 영역에 따른 이상적 및 실제적 통제의 평균 표준편차 (괄호 속)

	이상적 통제			실제적 통제			
	개인	관습	혼합	개인	관습	혼합	전체
중3	1.35 (.42)	2.61 (1.10)	2.09 (.65)	1.36 (.47)	2.71 (1.12)	2.16 (.69)	2.02 (.59)
고1	1.27 (.32)	2.20 (.90)	1.80 (.59)	1.25 (.36)	2.20 (1.02)	1.86 (.68)	1.76 (.53)
고2	1.27 (.27)	2.09 (.92)	1.71 (.52)	1.20 (.27)	1.96 (.94)	1.65 (.54)	1.64 (.44)
전체	1.30 (.34)	2.31 (1.00)	1.88 (.61)	1.27 (.38)	2.31 (1.08)	1.9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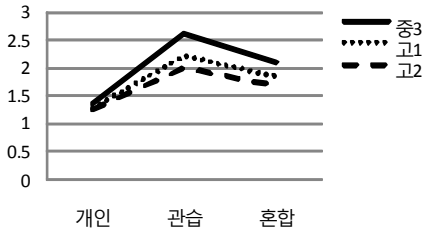


그림 1. 학년과 영역에 따른 부모통제

제시하였다. 중3, 고1과 고3의 평균은 개인적 영역에서 1.35, 1.26, 1.23, 관습적 영역에서는 2.66, 2.20, 2.02, 그리고 혼합영역에서는 2.12, 1.83, 1.68이었다. 학년을 요인으로 하여 각 영역 별 점수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F_{2,341} = 4.25, p < .01$), 관습적($F_{2,341} = 13.87, p < .01$), 및 혼합 영역($F_{2,338} = 18.27, p < .01$) 모두에서 학년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고,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습적 및 혼합영역에서는 중학생들의 점수가 고등학교 1학년($p < .01$)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점수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인적 영역에서는 중학생들의 점수는 고등학교 1학년과는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과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 .01$).

즉,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는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이미 상당히 낮아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런 경향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더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관습적 영역과 혼합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는 중학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로 가면서 많이 감소하였다.

부모통제와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

두 번째 연구 문제 즉,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 사이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증상은 내재화 증상과 외현화 증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이정신진단검사로 평가된 6개의 심리적 증상 가운데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의 점수로 내재화 증상 점수를 산출하였고, 적대감 점수로 외현화 증상 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내재화와 외현화 증상 점수를 사용하여 부모통제와 상관을 산출하였다. 세 영역에 대한 이상적 통제는 모든 조건에서 내재화 증상이나 외현화 증상과 최저 0에서부터 최대 .20사이의 상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실제적 통제와 심리적 증상 사이의 상관만 표 2에 제시하였다.

중학생에서는 어떤 영역의 부모통제도 심리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 모두에서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가 내재화 증상과 각각 .28과 .37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상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이 남학생들에서만 나타났다.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내재화 증상은 .47의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밖에도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는 외현화 증상

표 2. 학년, 성별에 따른 영역별 실제적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사이의 상관

		내재화			외현화		
		개인	관습	혼합	개인	관습	혼합
중3	남	.18	-.11	-.01	.16	-.06	.05
	여	.08	.11	.14	.03	.06	.01
고1	남	.28*	.21	.25	.22	.19	.13
	여	.37**	.24	.24	.14	.07	.00
고2	남	.47**	.16	.33*	.34*	.02	.21
	여	.21	.00	.00	.14	-.03	-.05

* $p < .05$, ** $p < .01$

과도 .34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혼합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도 내재화 증상과 .33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부모들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많이 통제할수록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증상을 많이 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에서는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사이의 관련성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많이 통제할수록 내재화 증상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모들이 개인적 문제를 많이 통제할수록 외현화 증상도 더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부모들이 혼합영역의 문제를 많이 통제할수록 내재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다.

상관분석에서 부모통제와 내재화 증상 사이에 유의한 상관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가 청소년들의 내재화 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 세 영역에 대한 실제적 통제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청소년들의 내재화 증상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1에서는 참가자들

의 인구학적 변인, 즉 성별과 학년을 투입하였고, 단계2에서는 세 영역에 대한 실제적 통제를 같이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1에서 성별과 학년만을 투입하였을 때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내재화 증상의 변량 가운데 단지 6%만을 설명하였다. 성별과 학년 모두가 내재화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단계2에서 성별과 학년과 더불어 세 영역에 대한 실제적 부모통제를 같이 투입하였을 때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내재화 증상의 변량 가운데 11%를 설명하여 이전보다 설명력이 5% 증가하였다. 개별 변인 가운데에서는 단계1에서 유의하였던 성별과 학년 그리고 실제적 통제 가운데에서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만이 내재화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석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심리적 증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산분석 결과, 학년의 주 효과($F_{2,333} = 7.40, p < .01$), 학년 × 증상과 성별 × 증상 상호작용 효과($F_{2,333} = 3.22, p < .05$; $F_{1,333} = 6.70, p < .01$)가 유의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심리적 증상을 더 많이 보였을 뿐 아니라 내재화 증상도 더 많이 보였고, 남학생들과

표 3. 내재화 증상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예언변인	β	t	R^2	F
단계 1			.06	9.91**
성별	.12	2.33*		
학년	.20	3.67**		
단계 2			.11	8.20**
성	.12	2.30*		
학년	.24	4.38*		
부모통제				
개인적	.18	2.83**		
관습적	-.11	-1.39		
혼합	.15	1.67		

* $p < .05$, ** $p < .01$

표 4. 학년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 증상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속)

		내재화	외현화
중3	남	.59 (.53)	.60 (.72)
	여	.59 (.46)	.60 (.70)
고1	남	.82 (.65)	.77 (.84)
	여	1.06 (.65)	.84 (.75)
고2	남	.80 (.75)	.81 (.86)
	여	1.01 (.55)	.83 (.71)

달리 여학생들은 내재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하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한 부모통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과 관련성을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각 문제에 대해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논의점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관습적 및 혼합 영역의 문제보다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더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경향은 중학교에서부터 나타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더 증가하였다. 반면 관습적 및 혼합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영역의 문제보다 부모에게 더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경향은 고등학교로 가면서 더 감소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고등학생들에서 발견되었다. 고등학생들은 부모들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많이 통제할수록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증상을 많이 보였으나, 관습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 가운데 내재화 및 외현화 증상 어느 것보다도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는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통제로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Smetana와 Daddis(2002)의 제안을 지지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 문화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였다(예, Hasebe 등, 2004; Lins-Dyer, 2003; Wang 등, 2007). 이런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권에 관계없이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해결해야하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Helwig, 2006; Nucci, 1996),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생각은 유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박영신, 2006; 부성숙, 2007; Yau & Smetana, 2003b) 청소년들의 개인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초기 청소년기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에 의미있게 발달함을 보여준다(Darling 등, 2008; Lins-Dyer 등, 2007).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부모통제로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함을 보여준다.

덧붙여 이런 발달과정은 개인주의 문화나 집합주의 문화에 사는 청소년들에서 상당히 유사하여서 문화적 차이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자율성이 획득되는 전반적 과정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인격체, 또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감과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욕구이자 발달과업임을 보여준다.

그 밖에 흥미로운 결과들이 일부 있었다. 하나는 간이정신진단검사로 평가했을 때 미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Hasebe 등, 2004),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내재화 및 외현화 증상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심리적 증상의 성차는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여(Hasebe 등, 2004; Leadbeater, Kuperminc, Blatt, & Hertzog, 1999),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내재화 증상을 많이 보였고, 외현화 증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 점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14세부터 17세 사이) 미국과 일본 청소년들에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에 연령차가 없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더 떨어졌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은 관습적 문제나 혼합영역의 문제에 대해 고등학생들보다 부모들에게 통제권이 더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직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는 중학교 시기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개인적 자율성의 발달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늦게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개인적 문제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의 관련성이 중학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가 미국과 중국의 중학생들의 정서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Wang 등, 2007)와 대비가 된다. 이는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우리나라 중학생들에서는 개인적 자율성이나 개인적 정체감이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여, 부모통제에 대해 더 수용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의 관련성이 우리나라에서 더 높았다. 일본과 미국 청소년에서는 상관이 각각 .26과 .22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조건에서 .29, .37와 .47이었다. 우리나라가 집합주의적 문화권에 속하므로 청소년들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부모통제에 더 수용적이어서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이 개

인주의적 문화권에서 보다 더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연구들의 세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오히려 미국과 일본 청소년들보다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점을 논하겠다. 연구의 제한점 가운데 하나는 연구도구이다. 앞에서도 논한 것처럼, 중학생들의 심리적 증상을 평가하는 적절한 검사가 없어서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는 중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부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심리적 증상을 평가하는데 신뢰롭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중학생들에게 타당하고, 신뢰롭게 심리적 증상을 평가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중학생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가 심리적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제한점은 연구절차였다. 부모통제척도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교사가 집단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척도와 검사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이상적 통제보다 실제적 통제에서 부모들의 통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반해(Hasebe 등, 2004; Lins-Dyer & Nucci,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 통제와 실제적 통제 사이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일한 문제들로 이상적 및 실제적 통제를 두 번 평가하였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이상적 통제와 실제적 통제를 개념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응했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문항에 동일한 반응을 하였던 참가자들이 일부 있었다. 따라서 설문지가 아니라 일대일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이 청소년들의 반응을 더 신뢰롭게 측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제한점은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제한된 계층의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에 참여 하였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중하류 이하의 계층에 속했다. 부모통제 척도로 평가된 부모통제 점수가 최저 1.21에서 최고 2.67 사이로 5점 척도 상에서 중간점수 3점에 미치지 못하고 비교적 낮았다. 어쩌면 이는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대부분이 생업에 바빠서 자녀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는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Nucci, Camino, & Sapiro, 1996) 우리나라 중산층의 청소년들로 연구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고향자, 강혜원 (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77-293.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박수길, 이영희 (2002).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박영신 (2006). 유아들의 도덕적, 사회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39-53.

박영신 (2009). 개인적 및 관습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2, 145-164.

부성숙 (2007). 유아의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개념. *유아교육연구*, 27, 35-56.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 (200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2), 53-65.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Darling, N., Cumsille, P., & Martinez, M. L.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beliefs about the legitimacy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ir obligation to obey: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79(4), 1103-1118.

Darling, N., Cumsille, P., & Pena-Alampay, L. (2005). Rules, legitimacy of parental authority, and obligation to obey in Chile,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08, 47-60.

- Hasebe, Y., Nucci, L., & Nucci, M. S. (2004). Parental control of the personal domain and adolescent symptoms of psychopathology: A cross-national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ild Development, 75*(3), 815-828.
- Helwig, C. C. (2006).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utonomy throughout cultures. *Cognitive Development, 21*, 458-473.
- Killen, M., & Smetana, J. G. (1999). Social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70*, 486-501.
- Leadbeater, B. J., Kuperminc, G., Blatt, S., & Hertzog, C. (1999). A multivariate model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268-1282.
- Lins-Dyer, T. (2003). *Mexican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 social domain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Lins-Dyer, M. T., & Nucci, L. (2007). The impact of social class and social cognitive domain on northeastern Brazilian mothers' and daughters' conceptions of parental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105-114.
- Milnitsky-Sapiro, C., Turiel, E., & Nucci, L. (2006). Brazilian adolescents' conceptions of autonomy and parental authority. *Cognitive Development, 21*, 317-331.
- Mullins, D., & Tisak, M. S. (2006). Moral, conventional, and personal rules: The perspective of foster yout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10-325.
- Nucci, L. (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Nucci, L. (1996). Morality and the personal sphere of actions. In E. Reed, E. Turiel, & T. Brown (Eds), *Value and knowledge* (pp. 41-6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Nucci, L., Camino, C., & Sapiro, C. M. (1996). Social class effects on Northeastern Brazilian children's conceptions of areas of personal choice and social regulation. *Child Development, 67*, 1223-1242.
- Nucci, L. P., & Weber, E. K. (1995). Social interactions in the home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66*, 1438-1452.
- Smetana, J. G. (1988).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 521-335.
-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metana, J. G. (2000).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arenting practice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71*, 1672-1686.

- Smetana, J. G. (1995).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299-316.
- Smetana, J. G., & Asquith, P. (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 1147-1162.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 Smetana, J. G., & Gaines, C. (1999). Adolescent-parent conflict in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1447-1463.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5), 1592-1610.
- Yau, J., & Smetana, J. G. (2003a). Adolescent-parent conflict in Hong-Kong and Shenzhen: A Comparison of youth in two cultural contex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3), 201-211.
- Yau, J., & Smetana, J. G. (2003b). Conceptions of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s among Chinese preschooler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74*(3), 647-658.

1차 원고 접수: 2010. 01. 10

수정 원고 접수: 2010. 02. 10

최종 게재 결정: 2010. 02. 11

Parental Control of Adolescents' Personal Domain and Psychological Symptoms

Young-Sh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ontrol over the problems in personal, conventional and overlapping domain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symptoms were examined.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and first and second graders in high school completed a parental authority index and Korean Symptom Checklist-90-Revision. In the parental authority index, students evaluated two types of control, ideal and perceived control. Ideal control indicates who (they or parents) should control the problems in personal, conventional and overlapping domains whereas perceived control indicates who would control the problems in real world. In Korean Symptom Checklist, they reported nine psychological symptoms. Adolescents indicated that they should and would control over problems from personal domain and that their parents should and would control over problems from conventional domain. Perceived parental controls for personal domain onl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adolescents' internalizing symptoms in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there were no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control of conventional issues and psychological symptoms.

Keywords: personal domain, parental control, psychological symptoms, adolescents